

Dubai유, 45달러 선으로 폭락

4월28일 45.66달러로 1.54달러 떨어져 ... WTI · Brent 소폭상승

4월28일 국제유가는 단기간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매도포지션 청산을 위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으나 Dubai유는 45.66달러로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NYMEX의 WTI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0.16달러 상승한 51.77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도 0.19달러 오른 52.48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반면, Dubai 현물유가는 전일 예상보다 많은 미국의 원유 재고증가 영향을 받아 1.54달러 하락한 45.66달러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4/25	4/26	4/27	4/28
현 물	Dubai	48.26	47.26	47.20	45.66
	Brent	52.27	50.73	50.24	49.19
	WTI	51.62	54.21	51.25	51.89
	Oman	49.37	-	-	-
	Tapis	59.04	-	-	-
NYMEX 선물(WTI)	6월	54.57	54.20	51.61	51.77
	7월	55.91	55.65	53.19	53.25
환율(원/달러)		1008.50	1009.10	1012.20	1012.3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석유시장 브로커에 따르면, WTI 선물유가는 4월22일 55.39달러를 기록한 뒤 3일간 6.8% 하락했으며 석유시장에는 WTI 기준선인 50달러 선을 방어하기 위한 투자자금 매수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가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로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이후 석유 수요 감소 전망이 제기돼 장중에 국제유가 안정요인으로 작용했다.

<화학저널 2005/04/29>